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재고 · 출하/소비

■ 고용 취업자/실업자/물가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생산 지난해 9월 대비 1.9%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은 지난해 9월 대비 1.9% 감소하여 지난 6월 이후 전년동월 대비 제조업생산은 감소세를 이어감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난해 9월 대비 3.6%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9.7%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4.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6% 상승함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10월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중 서울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과 동일한 4,919천명으로,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지난 2월 이후 전국수준을 하회함 - 10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4.6%로 지난해 10월 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의 실업률보다는 1.3%p 높음 ○ 서울의 소비자 물가 하락세로 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중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주거비(0.3%)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광열·수도(-1.3%) 및 교통·수도(-1.1%) 가격이 내림에 따라 0.2% 하락하여 지난 3개월간 지속되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됨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9월 대비 감소·서울의 건설수주액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중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775천㎡로 지난해 9월 대비 17.6%(전국:+54.2%)감소 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주거용 건축허가면적(-39.7%)의 감소에 기인함 - 9월중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3,162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대비 215.0%(전국:+94.1%) 증가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9월보다 2.0% 상승하여 2006년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특히 영등포구(3.6%), 은평구(3.4%), 강서구(3.3%)에서 높게 나타남 - 10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재개발과 뉴타운계획에 따른 이주 수요의 증가로 지난 9월 대비 1.4% 상승하여 상승세가 지속됨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신설법인 수 감소, 부도업체 수 감소, 어음부도율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9월 대비 18.6%(-307개) 감소한 1,346개임 - 10월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지난 9월 보다 0.01%p 상승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지난 9월 보다 4개 감소한 72개로 2006년 상반기 평균(76개)과 비슷한 수준임 ○ 서울 지난해 9월 대비 수출 2.0% 감소, 수입 18.3%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중 서울의 수출은 지난해 10월 대비 2.0% 감소한 1,930백만 불, 수입은 18.3% 증가한 4,978백만 불을 기록함 ○ 장·단기 금리차 큰 폭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4.71%)가 지난 9월 대비 0.14%p 크게 상승하였으나 콜금리(4.48%)가 유지됨에 따라 10월말 현재 0.13%p로 크게 확대됨 ○ KOSPI 지수 큰 폭으로 하락 후 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10월중 KOSPI 지수는 월초 북한 핵실험(10.9일)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증시가 월초의 단가낙폭을 회복하면서 10.31일 1,364.55p로 마감함

| 생 · 산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감소세 둔화

- 전국 산업생산 견실한 신장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 유지
 - 2006년 9월중 전국의 산업생산은 반도체 등 IT부문의 호조세 지속, 자동차 조업정상화, 추석시기 이동 등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지난해 대비 16.3% 증가함
 - 업종별로는 지난해 대비 영상음향통신 등 일부 업종에서만 감소하였을 뿐 액정표시장치, 반도체메모리, 자동차, 조선 등에서 크게 증가하고 그 외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등 대부분이 증가함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감소세 둔화
 - 2006년 9월중 서울의 지난해 대비 산업생산은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난 7월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것이 지난 6월 수준으로 회복됨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화합물 및 화학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에서 감소함
- 서울 중공업부문 산업생산 감소폭 축소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9월 대비 15.9% 감소하여 지난 4월 이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 7월(-24.2%)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됨
 - 세부업종별로 비금속광물(27.8%)만이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고,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약품: -54.4%), 제1차금속(-33.9%), 컴퓨터 및 사무기기(-30.7%) 등이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9월 대비 4.0% 증가하여 지난 7월 산업생산 감소가 증가세로 회복됨
 - 세부업종별로 음식료품(-14.9%) 등은 감소하였으나 종이제품(45.2%), 가죽·가방 및 신발(31.5%), 의복 및 모피(9.6%) 등이 증가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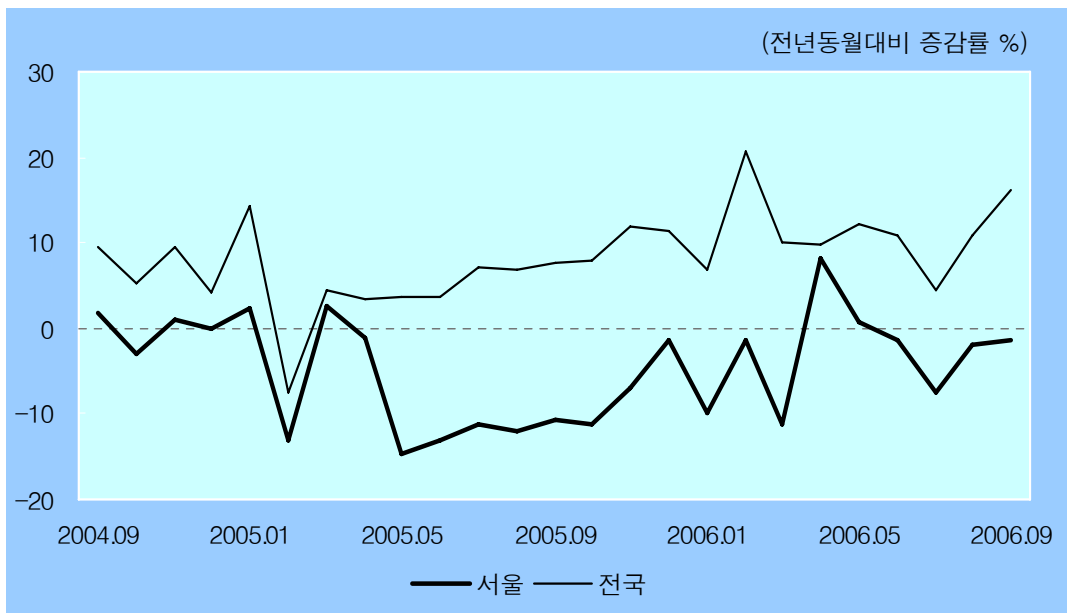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7.6 (3.7)	12.1 (2.6)	10.9 (-1.2)	4.5 (-6.3)	10.9 (3.4)	16.3 (8.8)
	서울 (제조업)	-10.9 (7.5)	0.6 (-19.7)	-1.6 (-3.0)	-7.9 (-5.4)	-2.5 (2.0)	-1.9 (8.2)
	중공업	-26.5 (0.0)	-6.7 (-46.7)	-9.0 (3.8)	-24.2 (-17.6)	-18.2 (3.8)	-15.9 (2.8)
	경공업	-2.3 (11.0)	3.7 (-0.1)	2.0 (-5.7)	-0.4 (-0.4)	4.7 (1.3)	4.0 (10.1)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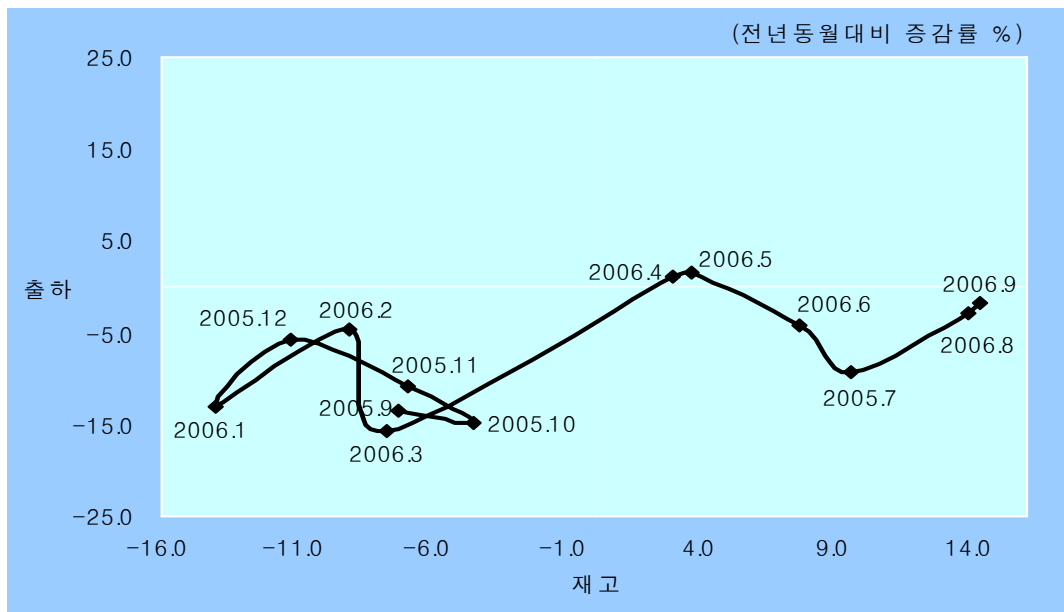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 제조업부문 의도된 재고증가

■ 서울 제조업부문 지난해 9월 대비 재고 증가, 출하 감소

- 2006년 9월중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재고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지난해 9월 대비 1.8% 감소하여 지난 6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재고는 지난해 9월 대비 14.3%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 2006년 9월은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재고가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의도된 재고증가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	재고 ↓	재고 ↑	재고 ↑
출하 ↓	출하 ↑	출하 ↑	출하 ↓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감소

- 2006년 9월중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3.1%를 기록하여 지난 7월 상당폭 증가하였던 것이 8월에 이어 감소세를 나타내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도 169.7%로 지난 7월 이후 감소세를 나타냄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149.4%, 경공업부문은 174.6%로, 중공업부문에 재고율이 지난 8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 7월에 비해서는 감소하였고 경공업부문에서는 지난 8월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74.6%의 높은 재고율을 나타냄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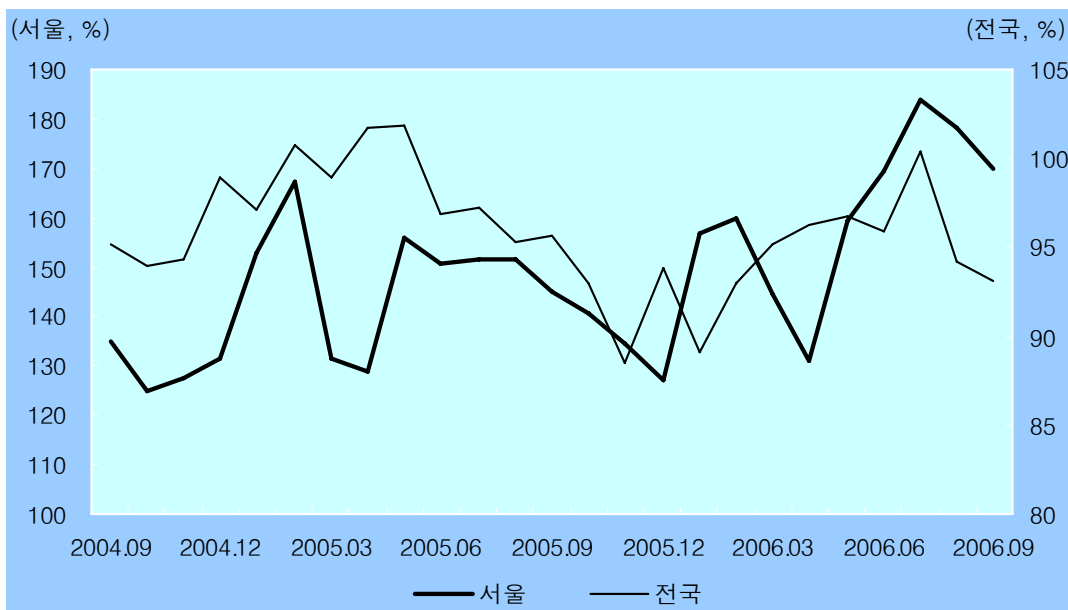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재고율	전국	95.6	96.8	95.9	100.4	94.2	93.1
	서울 (제조업)	145.1	159.6	169.6	183.7	178.1	169.7
	중공업	121.6	127.7	132.6	169.1	143.1	149.4
	경공업	153.6	170.6	182.8	186.1	189.1	174.6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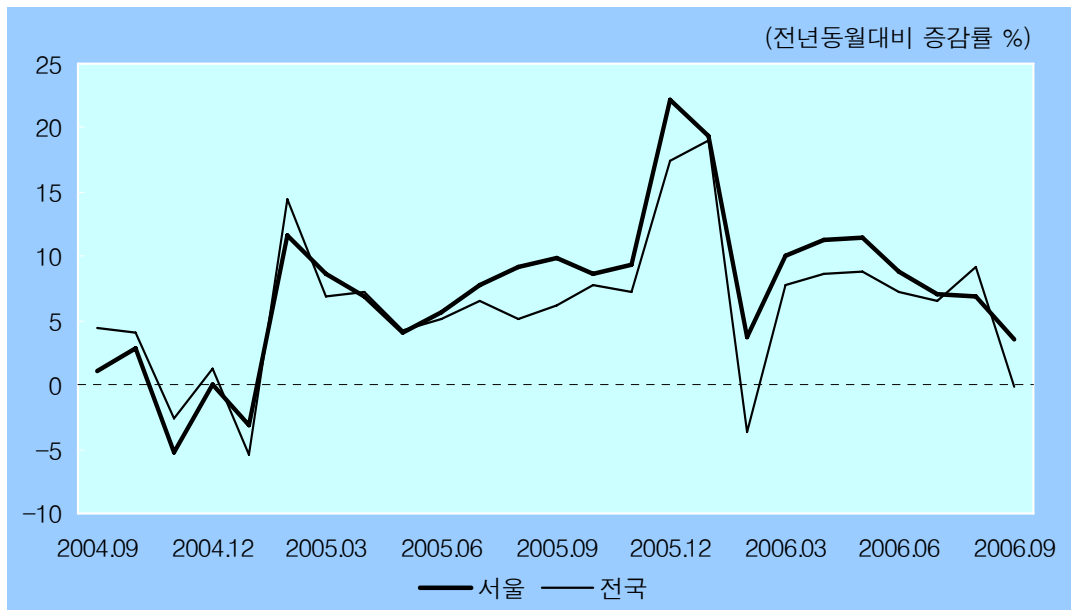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 감소세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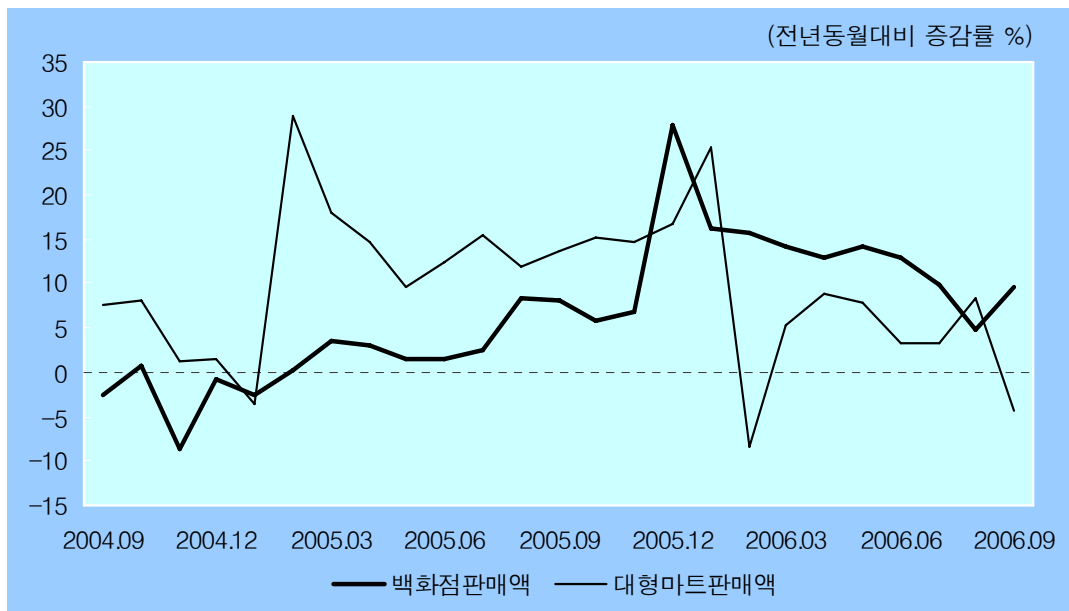
- 2006년 9월중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대비 0.1% 감소하여, 지난 3월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던 지난해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등락함
- 이는 백화점 매출이 사은행사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대형할인점의 업계간 인수합병과 추석이동의 영향으로 인한 감소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백화점부문은 가전제품, 귀금속, 화장품 등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가구, 의복, 신발 등의 판매 호조로 지난해 9월 대비 0.4% 증가함
- 대형마트부문은 추석명절이 10월 초에 든 관계로 식품(제수용품), 잡화, 의류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지난해 9월 대비 3.2% 감소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축소

- 2006년 9월중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9.7%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4.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9월 대비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이 축소됨
- 백화점부문의 경우 쌍춘년의 영향으로 혼수용품인 가전, 가구, 주방용품 등 판매호조로 지난해 9월에 비하여 9.7% 증가함
- 지난 8월에 비해서는 가을 신상품 판매에 따른 의복, 신발, 가방의 판매증가와 추석 선물용품 구입증가로 인한 음식료품 판매호조로 34.3% 증가함
- 대형마트(할인점)부문은 추석 기간의 상이로 인해(2005년 9월 18일→2006년 10월 6일) 음식료품 수요 감소로 지난해 9월 대비 4.3% 감소함
- 지난 8월에 비해서는 여름가전의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가을 의복 및 신발의 판매증가로 2.1% 증가함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9월	5월	6월	7월	8월p	9월p
판매액	전국	3,731 (6.1)	3,711 (8.8)	3,353 (7.3)	3,632 (6.6)	3,356 (9.1)	3,727 (-0.1)
	서울	1,217 (9.9)	1,254 (11.5)	1,125 (8.8)	1,198 (7.1)	1,069 (6.8)	1,260 (3.6)
	백화점	649 (8.2)	723 (14.1)	620 (13.0)	653 (9.8)	530 (4.7)	712 (9.7)
	대형마트 (할인점)	536 (13.7)	497 (7.8)	474 (3.3)	507 (3.4)	502 (8.3)	513 (-4.3)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예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10월과 동일

■ 전국의 취업자 수 지난해 10월 대비 소폭 증가

- 2006년 10월중 전국의 취업자는 23,463천명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1.2%(278천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7.8%(13,552천명)로 지난해 10월 대비 1.0% 증가하였고, 여자는 전체 취업자의 42.2%(9,912천명)로 1.5% 증가하여 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대비 4.9%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6.1% 증가하여 고령층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서울의 취업자 수 지난해 10월과 동일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취업자는 4,919천명으로 지난해 10월과 동일함
-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율에 비해 1.2%p 낮은 수준으로 지난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국에 비해 낮으며, 전국과의 격차가 지난 9월보다 0.3%p 확대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1%(2,810천명), 여자는 42.9%(2,083천명)로 지난해 10월 대비 남자는 0.3% 감소한 반면에 여자는 0.4% 증가함
- 여자의 경우 지난 8월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지속되던 증가추세가 감소세로 반전됨
- 전체 취업자의 20.8%(1,022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7.6% 감소하여 2006년 들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 청년층 취업자의 경우 20~24세(-16.4%)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이어 15~19세(-3.3%), 25~29세(-3.0%)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취업자의 15.2%(739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8.2% 증가하여 청년층과 반대로 2006년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특히 60세 이상에서 큰 폭(11.9%)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는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늘어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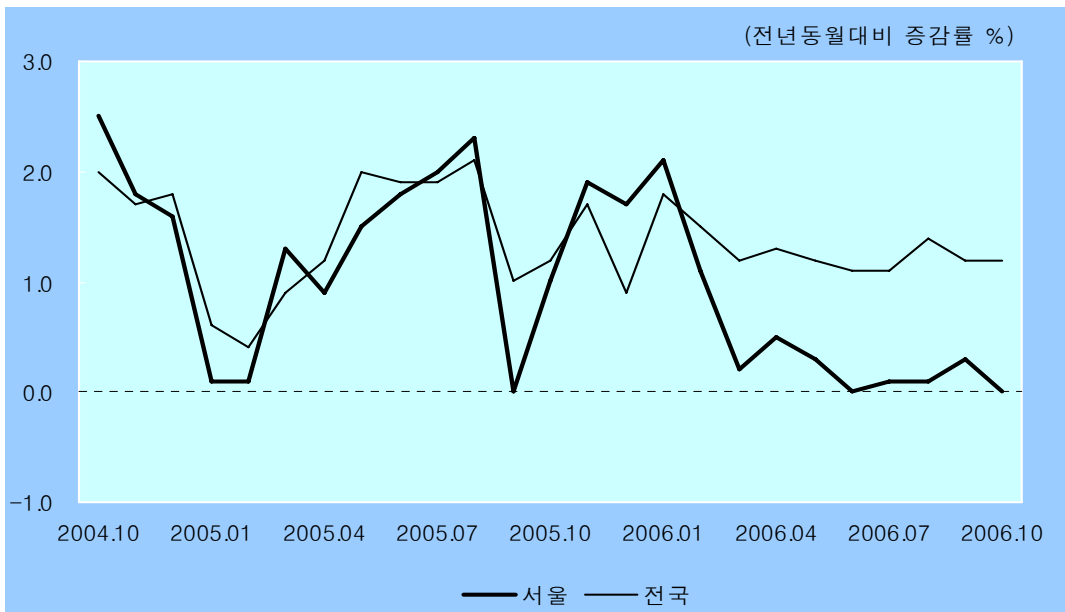
<표> 고용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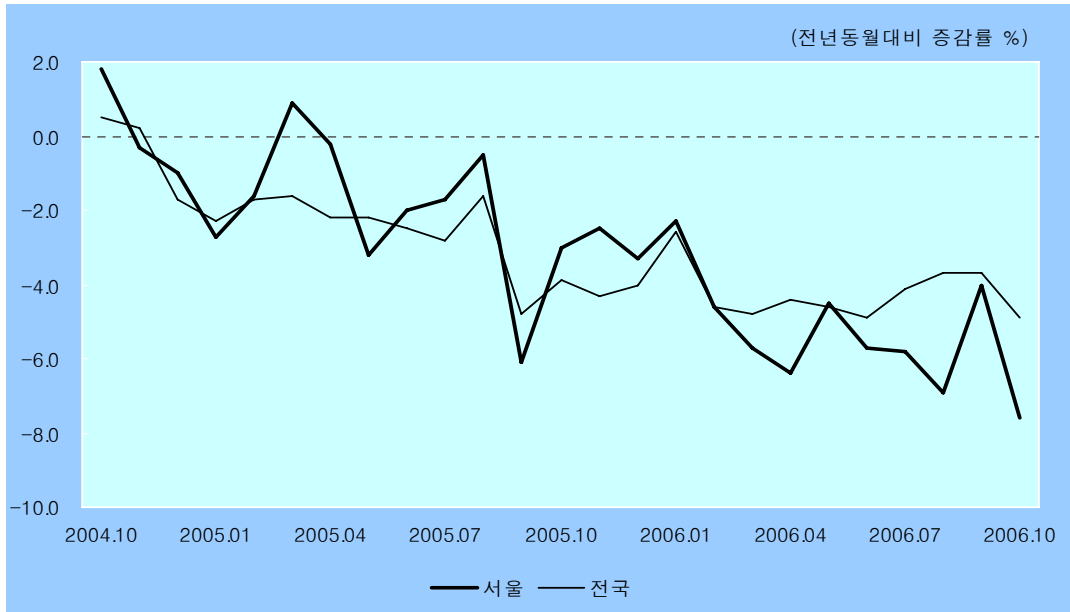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취업자	전국	1.2 (0.6)	1.2 (1.0)	1.1 (0.1)	1.1 (-0.2)	1.4 (-1.2)	1.2 (0.7)	1.2 (0.6)
	서울	1.0 (0.9)	0.3 (0.2)	0.0 (0.2)	0.1 (-0.5)	0.1 (-1.1)	0.3 (0.6)	0.0 (0.5)
	남자	0.3 (0.7)	0.1 (0.5)	-0.4 (-0.5)	0.7 (0.4)	0.0 (-1.3)	0.4 (0.2)	-0.3 (0.0)
	여자	2.0 (1.1)	0.6 (-0.2)	0.6 (1.1)	-0.7 (-1.7)	0.3 (-0.7)	0.2 (1.1)	0.4 (1.3)
청년층 취업자	전국	-3.9 (0.6)	-4.6 (0.7)	-4.9 (-0.8)	-4.1 (3.3)	-3.7 (-3.4)	-3.7 (-1.4)	-4.9 (-0.6)
	서울	-3.0 (1.4)	-4.5 (0.4)	-5.7 (-1.0)	-5.8 (1.1)	-6.9 (-3.3)	-4.0 (0.7)	-7.6 (-2.3)
고령층 취업자	전국	4.4 (0.8)	4.0 (3.3)	3.9 (1.1)	3.8 (-2.3)	4.8 (-0.5)	4.1 (1.9)	6.1 (2.7)
	서울	5.2 (0.0)	2.4 (0.6)	3.2 (1.4)	4.6 (-2.5)	4.9 (0.4)	2.3 (1.5)	8.2 (5.7)
	55-59세	0.8 (1.3)	-0.4 (-0.2)	1.3 (0.5)	2.0 (-1.9)	0.4 (-1.2)	2.7 (2.8)	3.4 (2.0)
	60세 이상	9.3 (-1.2)	4.7 (1.3)	4.8 (2.1)	6.9 (-3.0)	8.9 (1.9)	1.7 (0.1)	11.9 (8.8)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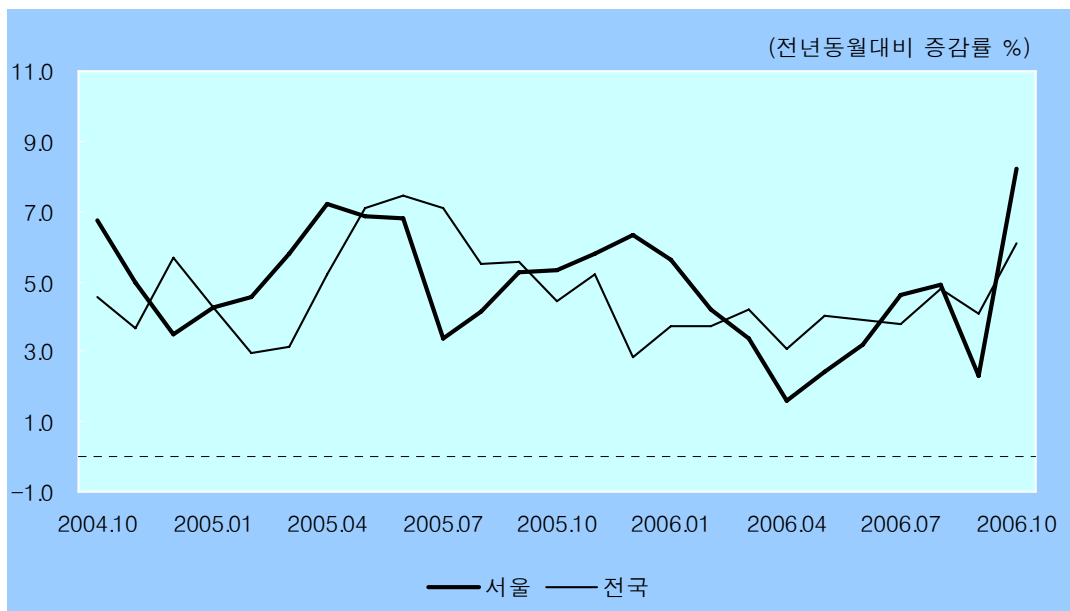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 2006년 10월중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6.6%, 도소매·음식숙박업 28.5%, 제조업 15.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4%, 건설업 8.5%의 분포를 나타냄
- 전체 취업자 중 각 산업별 취업자의 비중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0.5%p), 건설업(0.1%p)은 증가한 반면에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제조업은 동일하였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0.5%p)은 감소함
- 지난해 10월 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5%), 건설업(0.1%)이 증가한 반면에 제조업은 동일하였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1.8%), 전기·운수·통신·금융업(-0.4%)은 감소함

■ 서비스·판매 종사자 취업자 수 감소

- 2006년 10월중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9.9%,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9.4%, 서비스·판매 종사자 24.9%, 사무종사자 15.7%의 분포를 나타냄
- 전체 취업자 중 각 직업별 취업자의 비중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전문·기술·행정관리자(0.4%p),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0.5%p), 및 사무종사자(0.1%p)는 증가한 반면에 서비스·판매 종사자(-1.0%p)의 비중은 감소함
- 지난해 10월 대비 서비스·판매 종사자를(-3.9%) 제외하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1.6%), 전문·기술·행정관리자(1.4%), 사무종사자(0.4%) 모두 증가함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2006년 10월중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3.0% (3,591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7.0%(1,328천명)로 지난해 10월 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0.5%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10월 대비 0.8% 증가한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2.0% 감소하여 임금근로자의 증가추세가 지속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10월 대비 6.2%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임시근로자(-4.1%) 및 일용근로자(-3.7%)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의 84.6%를 차지하는 자영업주는 1.2%, 무급가족종사자는 6.0% 감소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산업별	· 제조업	-3.1 (1.0)	-5.4 (0.4)	-7.9 (-2.5)	-4.9 (2.4)	-3.5 (-2.6)	-4.1 (0.6)	0.0 (5.4)
	SOC 및 기타서비스업	1.8 (0.8)	1.4 (0.2)	1.4 (0.6)	1.1 (-0.9)	0.7 (-0.8)	1.1 (0.6)	0.0 (-0.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5.6 (1.2)	2.3 (-0.9)	3.7 (1.4)	1.6 (-1.6)	3.5 (0.0)	2.3 (1.5)	1.5 (0.5)
	· 도소매·음식숙박	0.8 (0.5)	0.4 (0.8)	1.1 (1.7)	1.3 (-0.4)	-1.2 (-1.6)	-0.8 (-0.2)	-1.8 (-0.6)
	· 전기·운수·통신·금융	-3.0 (0.4)	1.4 (2.3)	-0.8 (-2.1)	1.5 (1.6)	1.9 (0.0)	1.0 (-2.8)	-0.4 (-1.0)
	· 건설업	-3.4 (0.8)	0.8 (-0.1)	-3.7 (-2.8)	-2.2 (-2.6)	-5.4 (-2.4)	3.1 (4.4)	0.1 (-2.0)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0.1 (0.9)	3.5 (-0.5)	2.3 (-0.2)	1.8 (-0.5)	1.7 (-1.0)	2.9 (1.6)	1.4 (-0.6)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0.8 (0.2)	2.1 (0.9)	-3.4 (-4.0)	-0.7 (2.1)	-1.9 (-3.4)	-1.1 (1.4)	1.6 (3.0)
	서비스·판매종사자	3.4 (1.1)	-5.2 (-1.3)	2.4 (8.2)	-1.4 (-4.5)	-0.2 (1.3)	-2.1 (-2.1)	-3.9 (-0.8)
	사무종사자	-0.6 (1.4)	0.2 (2.8)	-2.1 (-3.7)	1.0 (2.2)	1.0 (-0.9)	1.7 (1.9)	0.4 (0.1)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2.5 (1.3)	1.8 (0.9)	-0.1 (-1.4)	1.6 (1.8)	1.3 (-2.6)	1.2 (0.7)	0.8 (0.8)
	비임금근로자	-2.6 (-0.3)	-3.7 (-1.6)	0.2 (4.5)	-3.9 (-6.3)	-3.0 (3.2)	-2.0 (0.4)	-2.0 (-0.3)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서울의 실업률 소폭 하락

■ 전국의 실업률 소폭 하락

- 2006년 10월중 전국의 실업률은 3.3%(789천명)로 지난해 10월 대비 0.3%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는 각각 3.6%(512천명), 2.7%(277천명)로 지난해 10월 대비 0.2%p, 0.7%p 하락함

■ 서울의 실업률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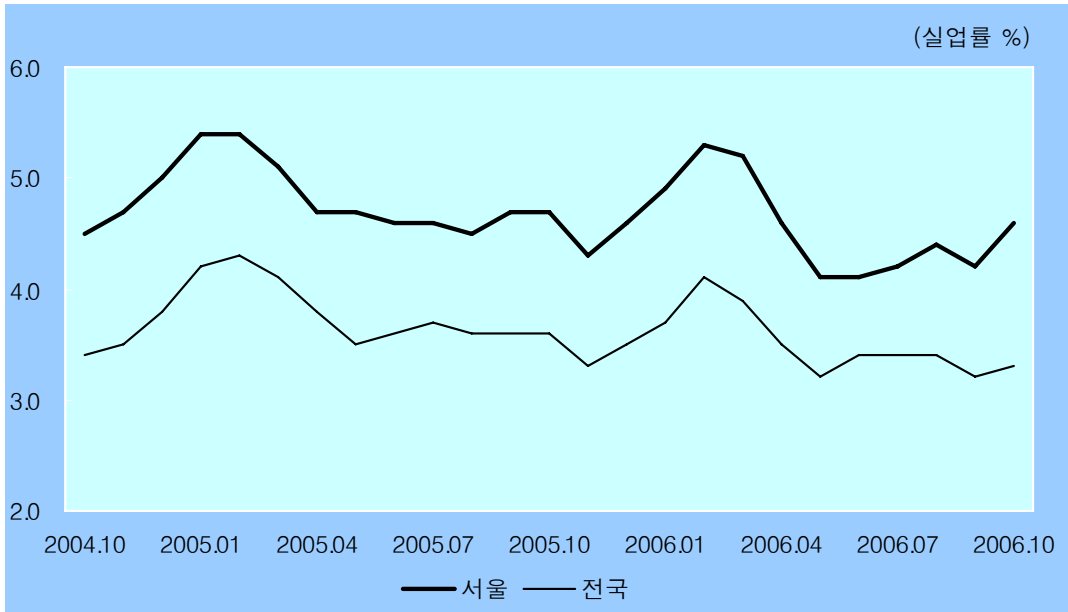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4.6%(237천명)로 지난해 10월 대비 0.1%p 하락함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10월 평균 실업률 4.4%보다는 0.2%p 낮음
- 서울의 실업률은 전국의 실업률 보다 1.3%p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과 서울의 실업률 격차는 7월 이후(7월:0.6%p, 8월:1.0%p, 9월:1.0%p) 확대됨
- 성별로 보면 남자의 실업률은 5.0%로 지난해 10월과 동일하며, 여자의 실업률은 4.0%로 0.2%p 감소하여 여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남자의 실업률과 여자의 실업률의 차는 7월 이후(7월:0.2%p, 8월:0.4%p, 9월:0.8%p, 10월:1.0%p) 꾸준히 확대됨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3.6	3.2	3.4	3.4	3.4	3.2	3.3	
서울	4.7	4.1	4.1	4.2	4.4	4.2	4.6	
성 별	남자	5.0	4.3	4.3	4.3	4.6	4.5	5.0
	여자	4.2	3.8	3.8	4.1	4.2	3.7	4.0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물 · 가 |

서울의 소비자 물가 하락세로 반전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소폭 하락

- 2006년 10월중 전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 9월 대비 0.5% 하락하여 지난 3개월간 지속되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됨
- 비목별로 보면 전·월세 등 집세는 소폭(0.3%) 상승했으나, 국제유가하락에 따라 석유류 제품과(-4.0%) 채소류, 축산물 등 농축산물은(-2.6%) 하락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소폭 하락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9월보다 0.2% 하락하여 전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3개월간 지속되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됨
- 이는 2000년 이후 10월 물가상승률(-0.02%) 보다 0.18%p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10월 물가상승률과 동일함
- 비목별로 보면 피복 및 신발(0.8%), 주거비(0.3%) 부문은 상승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광열·수도(-1.3%) 및 교통·통신(-1.1%)이 하락하였으며 출회가 증가한 식료품(-0.2%)이 하락함

■ 상품부문 하락, 서비스부문 보험세 유지

- 2006년 10월중 상품부문을 보면 휘발유, 등유 등 공업제품(-0.7%)과 채소류 등의 농축산물(-0.6%)이 하락함에 따라 지난 9월 대비 0.6% 하락함
- 2006년 10월중 서비스 부문을 보면 전·월세를 포함한 집세는 지난 9월 대비 0.4% 상승하여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및 개인서비스는 보험세를 유지함

■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 하락세로 반전

- 2006년 10월중 생활물가는 0.7%(전국: -1.1%),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는 0.4%(전국: -0.8%) 하락함
- 2006년 10월중 신선식품은 채소류(-14.3%)를 중심으로 1.3%(전국:-1.1%)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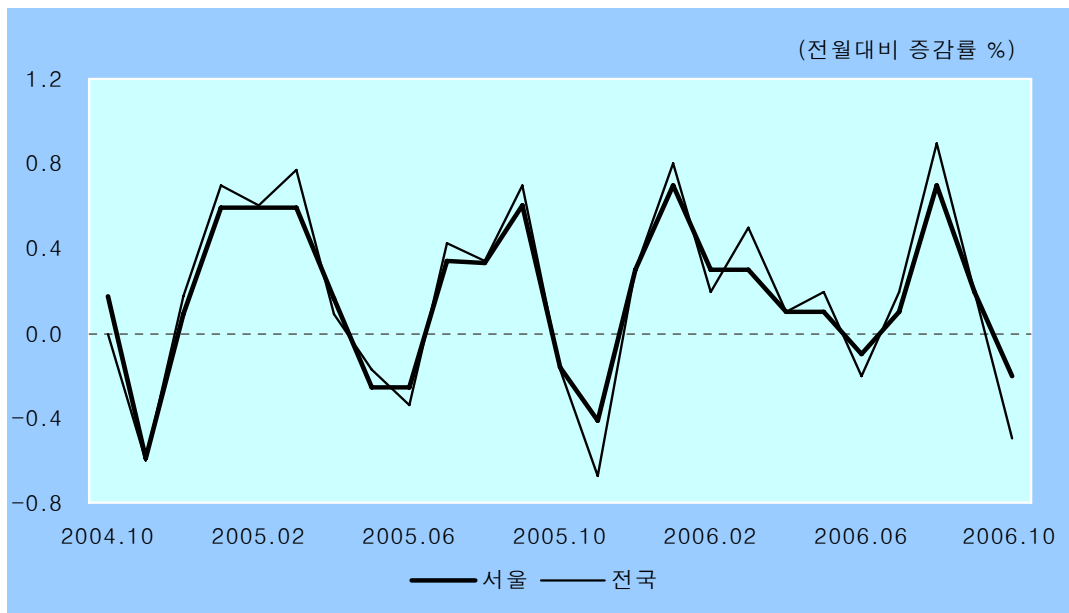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비	전국	-0.2 (2.5)	0.2 (2.4)	-0.2 (2.6)	0.2 (2.3)	0.9 (2.9)	0.2 (2.4)	-0.5 (2.1)	
	서울	-0.2 (2.0)	0.1 (2.3)	-0.1 (2.4)	0.1 (2.2)	0.7 (2.6)	0.2 (2.2)	-0.2 (2.2)	
	상품 성질별	상품	-0.3 (2.8)	0.1 (1.8)	-0.2 (2.4)	-0.2 (1.6)	1.7 (2.7)	0.1 (1.2)	-0.7 (0.9)
		서비스	0.0 (1.6)	0.0 (2.4)	0.1 (2.4)	0.3 (2.6)	0.1 (2.6)	0.2 (2.8)	0.2 (3.0)
	생활물가	-0.2 (3.2)	-0.2 (3.2)	-0.2 (3.5)	0.0 (2.8)	1.3 (3.6)	0.4 (3.0)	-0.7 (2.5)	
	신선식품	-1.5 (1.3)	-4.3 (-3.1)	-5.1 (-2.3)	-1.4 (-3.9)	12.5 (4.1)	2.5 (0.9)	-1.3 (1.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

| 건 · 설 · 경 · 기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국과 달리 감소세 지속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지난해 9월 대비 증가세 지속**
 - 2006년 9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11,109천㎡로 지난해 9월 대비 54.2% 증가함
 - 이는 전체 허가면적의 49.2%를 차지하는 주거용 허가면적이 98.2%, 20.0%를 차지하는 상업용 허가면적이 40.0% 증가한 데 기인함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주거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대비 감소**
 - 2006년 9월중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775천㎡로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허가면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월 대비 6.0%p 감소함
 - 지난 9월에 이어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증가한데 비해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감소함
 - 전체 건축허가면적의 28%를 차지하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단독(55.6%)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46.4%) 및 연립(-23.4%)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9월 대비 39.7% 감소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을 보면 공업용(741.2%)을 제외한 상업용(-26.2%), 문교 및 사회(-23.0%) 및 기타부문(-32.3%)의 허가면적이 감소함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7,206	9,313	14,132	21,080	8,502	11,109	54.2 (30.7)	
서울	940	858	2,094	3,078	692	775	-17.6 (12.0)	
주거용	소계	363	249	493	596	113	219	-39.7 (93.8)
	단독	9	14	17	23	10	14	55.6 (40.0)
	연립	64	84	48	128	18	49	-23.4 (172.2)
	아파트	291	151	428	436	85	156	-46.4 (83.5)
비주거용	소계	577	609	1,600	2,481	579	556	-3.6 (-4.0)
	상업	385	304	1,164	1,662	430	284	-26.2 (-34.0)
	공업	17	151	17	71	34	143	741.2 (320.6)
	문교/사회	113	149	243	626	111	87	-23.0 (-21.6)
기타	62	5	176	122	3	42	-32.3 (1300.0)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기타는 공업용, 공공용 포함,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므로 소계가 다를 수 있음

자료: 서울시 건축과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 동월비 증감률	
	9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5,268.0	7,135.1	9,262.6	7,291.3	5,910.2	10,223.2	94.1 (173.0)	
서울	417.8	1,330.3	2,590.1	1,113.9	870.1	1,316.2	215.0 (151.3)	
발주 자별	공공	107.9	362.1	400.9	304.4	72.4	596.8	453.3 (824.3)
	민간	308.1	968.1	2,188.3	808.5	512.0	517.0	67.8 (101.0)
공종 별	건축	368.3	1,324.2	2,574.8	1,082.4	855.6	1,205.4	227.3 (140.9)
	토목	47.3	5.9	12.9	31.2	12.0	106.0	124.1 (8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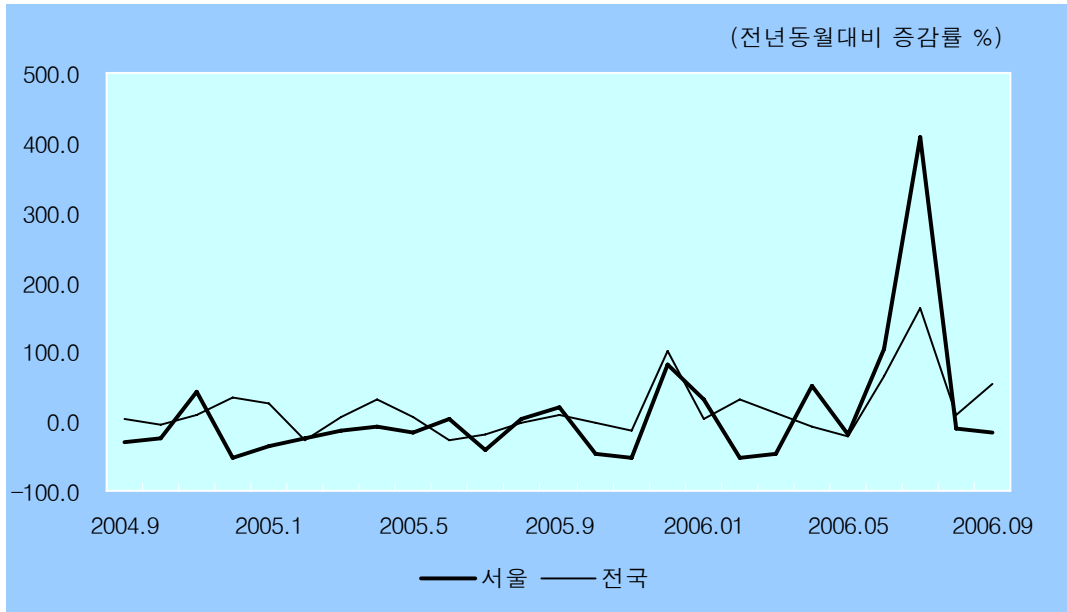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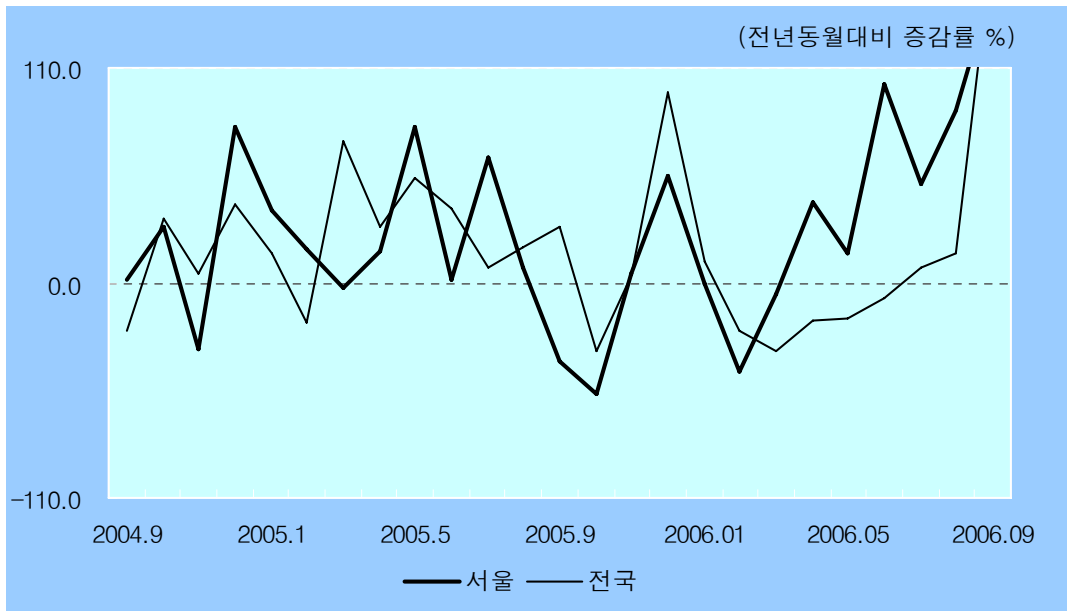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 서울의 건설수주액 지난해 9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 2006년 9월중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316.2억 원으로 전국 건설수주액의 12.9%를 차지하며, 지난해 9월 대비 94.1% 증가함
-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건설허가면적이 소폭(-17.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주액은 증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주택, 상가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발주액의 45.3%를 차지하는 공공부문에서 큰 폭(453.3%)으로 증가하였으며, 신규주택, 재개발 부문의 발주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67.8%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1.6%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227.3%, 8.1%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124.1% 증가함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지난 9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2006년 10월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9월 대비 1.3% 상승하여 상승폭이 큰 폭(0.8%p)으로 확대됨
 -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매물부족이 심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9월 대비 2.0% 상승하여 2006년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급격한 주택매매가격 상승은 재개발과 관련된 기대심리와 함께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에 따라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형성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보다 0.7%p 높은 수준으로 전국과의 격차(7월:0.1%p, 8월:0.2%p 9월:0.3%p)가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1.5%, 강남은 2.3% 상승하여 지난 9월에 비해 강남이 더 큰 폭(강남:1.4%p, 강북:0.8%p)으로 상승함
 - 2005년 말에 비해 서울은 10.2%(전국:6.3%) 증가하였으며, 이 중 강북은 6.3%, 강남은 13.8%로 강남이 강북의 두 배 이상 증가함
 -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2.2%, 연립주택 1.9%, 단독주택 1.4% 상승하여 아파트 가격이 지난 9월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 강북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9월에 이어 은평구(3.4%)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이어 마포구(2.3%), 용산구(1.8%), 광진구(1.7%)에서 강북지역 매매가격 상승률(1.5%) 상회하는 상승률을 나타냄
 - 반면 중구(0.7%), 중랑구(0.8%), 동대문구(0.9%)는 1.0%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0.0	1.0	0.5	0.2	0.2	0.5	1.3 (6.3)
서울	0.0	1.5	0.7	0.3	0.4	0.8	2.0 (10.2)
아파트	-0.2	2.0	0.6	0.3	0.3	0.6	2.2 (12.7)
지역별	강북	0.2	0.7	0.6	0.4	0.5	0.7 1.5 (6.3)
주택매매	강남	-0.2	2.2	0.8	0.3	0.2	0.9 2.3 (13.8)

주: , () 2005 12 대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영등포구, 강서구, 강동구, 양천구

- 강남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9월에 이어 강동구(3.2%)를 제외한 서울의 서남지역인 영등포구(3.6%), 강서구(3.3%), 양천구(2.7%)에서 강남지역 매매가격 상승률을(2.3%)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이어 금천구(0.8%)를 제외한 송파구(2.1%), 강남구(1.9%), 서초구(1.9%), 동작구(1.8%), 관악구(1.6%), 구로구(1.5%) 등 모든 강남 지역에서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1.3%)을 상회함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9월 대비 2.2% 상승(강북: 1.7%, 강남: 2.5%)하여 지난 9월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1.6%p) 확대됨
- 특히 지난 4개월 1.0%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던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9월중 큰 폭으로 상승함
- 구별로 보면 강동구(4.2%), 강서구(4.2%)가 4.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마포구(3.6%), 은평구(3.4%), 동작구(3.3%), 관악구(2.7%), 송파구(2.4%), 양천구(2.3%)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동대문구(0.5%), 도봉구(0.6%), 중랑구(0.9%)는 1.0%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 10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지난 9월 대비 3.2%(48만원)상승한 1553만원으로 지난 9월에 비해 상승폭이 2.1%p 확대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동구, 광진구이며, 이중 강동구(7.8%), 송파구(4.4%), 광진구(4.4%), 강남구(3.2%), 양천구(2.4%)에서 서울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평균 증가율을 상회함
- 반면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의 1/2 이하인 구는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이며, 이 중 강북구(4.9%), 금천구(4.0%), 중랑구(3.7%), 은평구(2.4%)에서 서울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평균 증가율을 상회함

〈Box〉 2006년 11.15 부동산 대책의 기본 골자

▶ 2006년 정부는 11.15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주택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 발표

▶ 11.15 부동산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 공급확대

- 공공택지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
 -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 추진
 -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 밀도 상향조정 ⇒ 8.9만호 추가 공급
 - 택지개발 기간단축 ⇒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5~6.5년

○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 기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
- 계획관리지역내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 다세대다가구,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규제 개선

2. 분양가 인하

택지조성비 절감: 택지지구밖 기반시설비의 합리적 분담 등
중소형(25.7평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

3. 수요관리 방안: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4. 서민주거 안정방안

장기 임대주택 비축공급 확대

서민 주택금융 지원강화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확대 등

〈표 1〉 부동산 안정 정책 주요 일지

일자	추진내용
2005. 2. 17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대책 재건축 안정대책 수요관리 및 근본적인 시장안정 추진
2005. 8. 31	서민주거 안정대책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수요정책: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합리화 주택공급정책: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 등 공급 확대, 주택공급제도의 공공성 강화
2006. 3. 30	서민 주거복지 증진 방안 재건축제도 합리화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주택시장 안정방안 투기지역내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리스크관리 강화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 부동 의 범위제한

<출처: 건설교통부>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 2006년 10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9월 대비 1.0% 상승하여 상승세가 지속됨
- 가을 이사철에 따른 계절적 수요와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원인으로 분석됨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9월 대비 1.4% 상승하여 지난 9월 대비 0.1%p, 전국 대비 0.4%p 상회함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8월에 이어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주택매매 가격이 지난 9월 이후 급등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주택전세가격 상승폭은 지난 9월에 비해 축소됨
- 강북은 1.6%, 강남은 1.3% 상승하였으며, 3개월 연속(8월:0.4%p, 9월:0.1%p, 10월:0.3%p) 강북지역이 강남지역의 상승률을 상회함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1.7%, 연립주택 1.3%, 단독주택 0.9% 상승하여 주택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상승폭이 확대됨

■ 주요 상승지역은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 은평구(3.7%), 노원구(2.5%), 도봉구(2.0%), 강서구(1.8%), 영등포구(1.8%), 강남구(1.7%), 성북구(1.6%)는 서울 평균 주택전세가격 상승률(1.4%)을 상회하는 지역임
-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북 지역에서 전세가격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강북지역의 주택전세가격상승은 뉴타운 개발 계획에 따른 전세이주수요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강북구(0.3%), 용산구(0.3%), 중구(0.4%), 구로구(0.5%), 종로구(0.6%), 금천구(0.8%), 동작구(0.9%), 송파구(0.9%)에서 1.0%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년		2006년					10월	()
	10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국	0.7	0.4	0.1	0.1	0.2	0.8	1.0	(4.8)	
서울	1.0	0.5	0.2	0.2	0.4	1.3	1.4	(7.4)	
아파트	1.5	0.6	0.2	0.2	0.4	1.2	1.7	(9.0)	
지역별	강북	0.6	0.4	0.2	0.2	0.6	1.3	1.6	(7.1)
주택전세	강남	1.3	0.6	0.2	0.2	0.2	1.2	1.3	(7.8)

주: , () 2005 12 ! 대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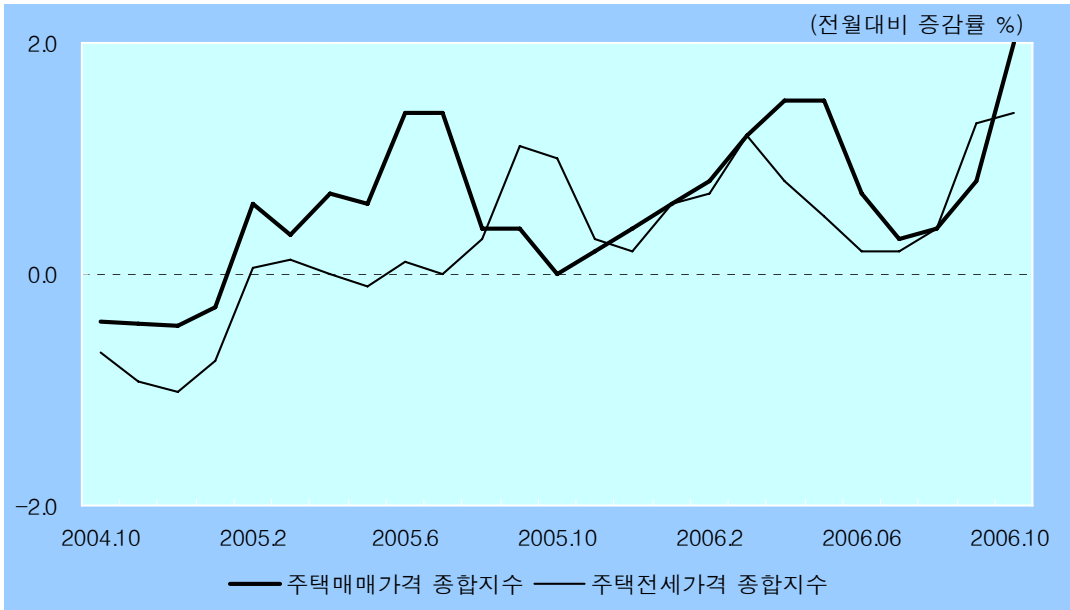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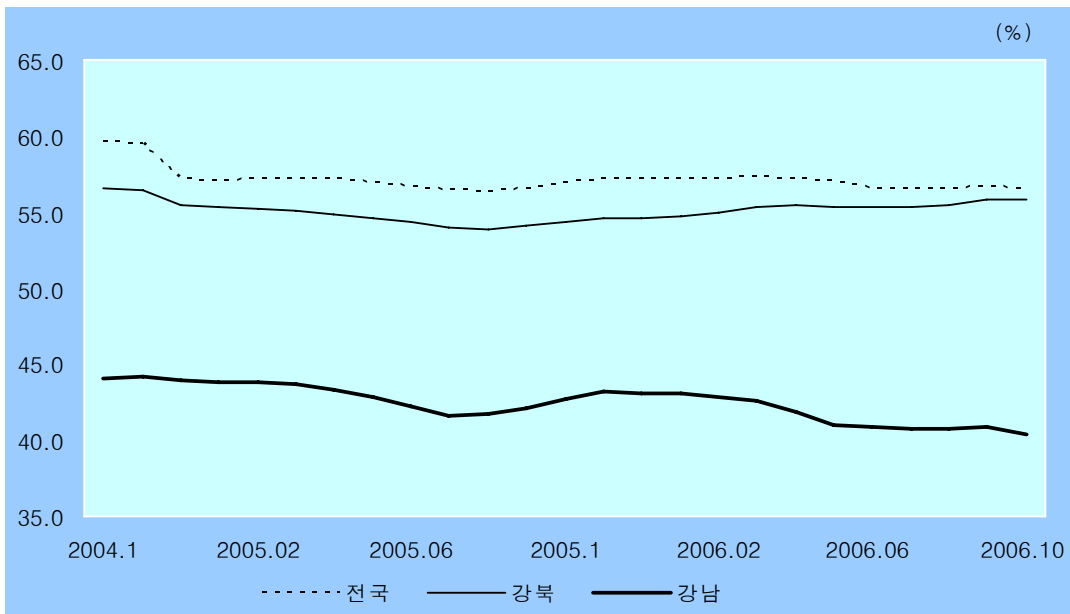
- 2006년 10월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9월 대비 1.7% 상승하였으며 강북은 1.8%, 강남은 1.5% 상승하여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0.3%p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지난 9월 대비 서울지역 전체의 주택전세가격상승률에 비해 아파트가격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
- 구별로는 은평구가(4.2%)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이어 노원구(2.7%), 강서구(2.6%), 강남구(2.1%), 강북구(2.0%)에서 2.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냄
- 반면 동대문구(0.2%), 구로구(0.3%), 종로구(0.6%), 용산구(0.7%), 중구(0.8%), 송파구(0.8%), 영등포구에서(0.9%) 1.0%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임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지난 9월에 비해 소폭 하락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7.5%로 전국 평균 56.6%를 9.1%p 하회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비해 0.2%p 하락함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전국과 유사한 55.8%, 강남은 40.4% 이며, 강북은 지난 9월과 동일하며, 강남은 0.5%p 하락함
-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이 강남이 강북에 비해 15.4%p 낮으며, 이는 강남이 강북에 비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 유통수익률 하락세 반등하여 큰 폭 상승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상승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지난 6월 하순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10월말 큰 폭으로 상승하여 4.71%(9월말 4.57%→10.16일 4.63%→10.20일 4.57%→10월말 4.71%) 기록함
- 이는 북한 핵실험 소식에도 낮아진 금리에 대한 부담감과 미 국채수익률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인 후 수습호조와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10월 하순 이후 정책금리 인하 기대 약화, 산업생산 등 경기지표 호전,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등에 기인함

■ CD 유통수익률 9월말 수준으로 반등

- 2006년 10월중 CD(91일) 유통수익률은 소폭 하락 후 9월 말 수준으로 반등하여 4.58%로 마감함(9월말 4.59%→10.13일 4.57%→10월말 4.58%)
- 2006년 10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지난 8월 콜금리가 4.50%로 0.25%p 인상된 후 현재 까지 동결됨에 따라 10월말 현재 4.48%를 나타냄

■ 장·단기 금리차 큰 폭으로 확대

-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가 지난 9월 대비 0.14%p 크게 상승하였으나 콜금리가 유지됨에 따라 10월말 현재 0.13%p로 크게 확대됨

■ KOSPI 지수 큰 폭으로 하락 후 반등

- 2006년 10월중 KOSPI 지수는 월초 북한 핵실험(10.9일)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세계증시의 상승세, 유가의 하향안정화, 국내기업들의 실적개선에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월초의 단기낙폭을 회복하면서 10.31일 1,364.55p로 마감함
- 2006년 10월중 KOSDAQ 지수는 해외증시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보여 586.10p로 마감함

■ 원/달러 환율 10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

- 2006년 10월중 원/달러 환율은 월 초반 급등 후 960원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월 후반 달러약세 요인이 나타나며 940위대로 하락함
- 월 초반에는 북핵실험 발표 당일(10.9일) 급등하며 963원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빠른 안정세를 찾아가며 960원 전후에서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월 후반 들어 미국 GDP 부진 등 달러약세 요인이 나타남에 따라 엔화환률과 함께 하락하며 942원대에서 마감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전월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4일		
금 리	국고채(3년)	4.92	4.83	4.76	4.57	4.71	4.76	0.15
	콜금리(1일)	4.21	4.22	4.49	4.48	4.48	4.47	0.00
	장·단기 금리차 ¹⁾	0.33	0.19	0.08	-0.02	0.13	0.29	-
	CD(91일물)	4.59	4.64	4.68	4.59	4.58	4.62	0.00
주 가	KOSPI ²⁾	1,295.15	1,297.82	1,352.74	1,371.41	1,364.55	1,421.73	-0.50
	KOSDAQ ²⁾	590.68	557.66	572.83	600.42	581.1	661.68	-3.22
환률 (W/US\$) ²⁾	948.9	955.2	961.5	946.2	942.3	930.2	-0.41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 - 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10월중 은행의 가계대출 지난 9월에 이어 증가폭 확대

- 2006년 10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9월 3.4조원 보다 크게 증가한 4.0조원으로 매월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가 하락한 데다 전세수요의 구입수요 전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9월과 비슷한 2.7조원으로 증가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추석연휴 카드사용대금 결제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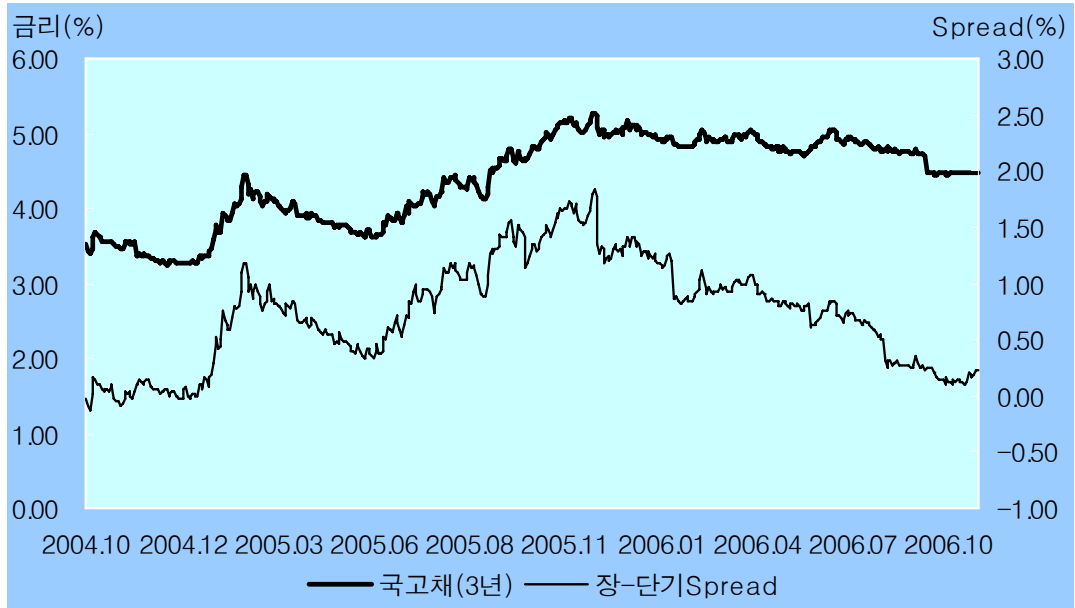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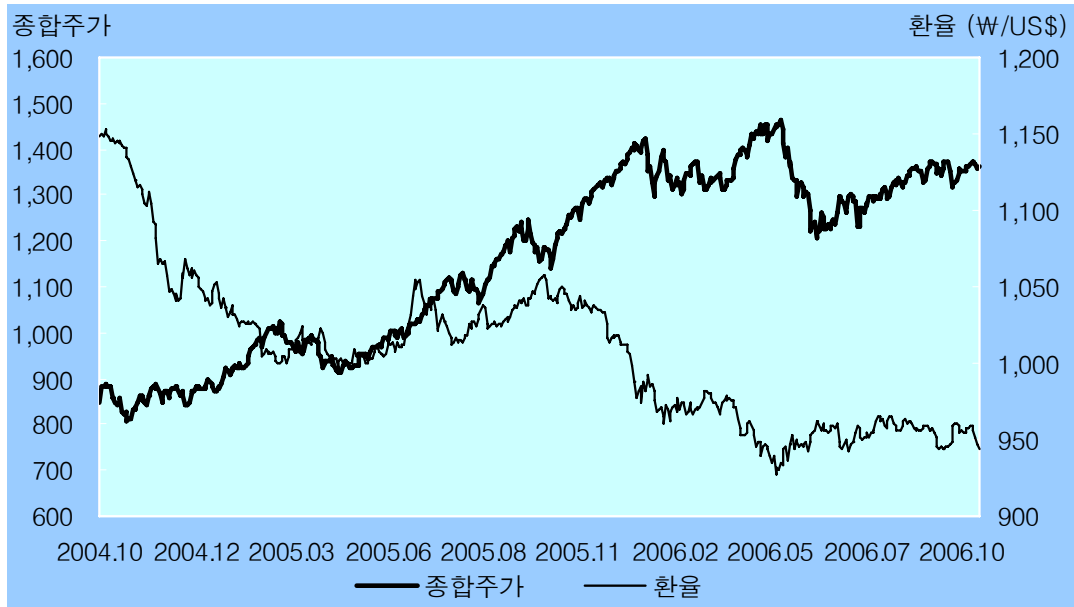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10월	2006년				월말잔액		전월비
		8월	9월	10월	2006년			
					9월	10월		
가계대출 ¹⁾	1.8	2.7	3.4	4.0	331.0	335.0	1.21	
주택담보대출 ²⁾	1.3	1.3	2.6	2.7	206.9	209.7	1.35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0.5	1.6	0.9	1.2	122.5	123.7	0.98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Box>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가계대출 동향

▶ 2001년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예금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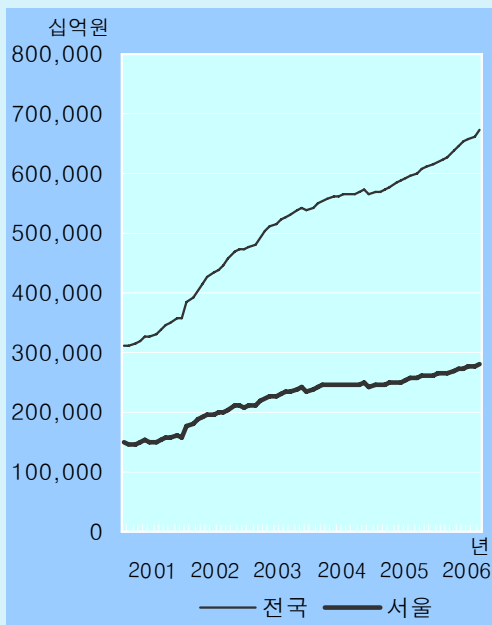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대출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전국과 서울의 가계대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
-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따로 빼서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동향을 살펴봄

▶ 2006년 9월 현재 2001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가계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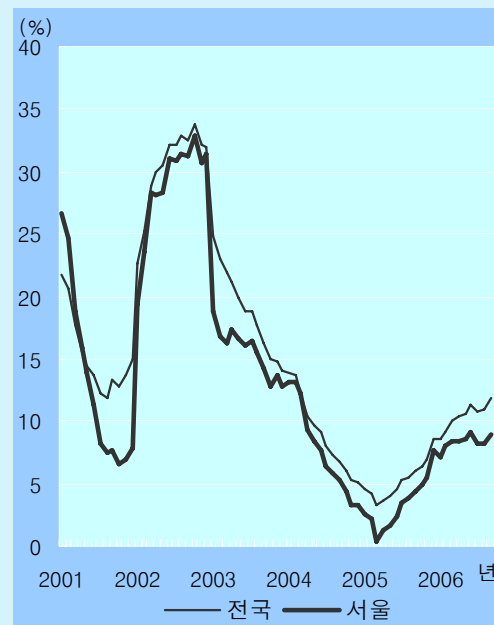
-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일반적인 가계대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포함한 가장 넓은 범위의 가계부채 지표임
- 경제규모가 커지면 경제활동 규모에 맞게 사람들이 돈도 많이 빌리고 이에 따른 투자활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나, 문제는 급격한 증가속도임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2001년 312조원에서 2006년 9월 현재 672조원으로 360조원 증가하였는데 증가분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임
- 이는 대출금리는 낮는데 주택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담보가 확실한 가계대출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등에 기인한 것임

▶ 서울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역시 두 배 가까이 증가

- 서울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역시 2001년 149조원에서 2005년 9월 현재 281조원으로 132조원이 증가하여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서울지역의 가계대출에 있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서울지역 1인당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이미 1억원을 넘어선 상황임(2006년 11월 21일자 매일경제)
- 2006년 9월 현재 서울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전국의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같은 기간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서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5.4%로 지방대출 증가세가 서울지역의 증가세를 상회해 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그림> 예금은행 가계대출 추이



<그림>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년동월비증감률

| 창 · 업 · 동 · 향 |

서울 신설법인 수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감소

- 2006년 10월중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9월 대비 17.8%(-746개) 감소한 3,451개임
- 업종별로 지난 9월 대비 제조업(-16.2%), 건설 및 설비업(-22.3%), 서비스업(-18.3%) 등 전 업종이 감소함

■ 서울 신설법인 수 감소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9월 대비 18.6%(-307개) 감소한 1,346개이고, 전국대비 비중은 39.0%로 지난 9월(39.4%)에 비하여 소폭 하락함
- 업종별로 지난 9월 대비 제조업은 9.6% 증가한 반면, 제조업을 제외한 건설 및 설비업(-25.2%), 서비스업(-19.7%) 등은 감소함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감소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1,143개로 지난 9월 대비 19.7% 감소함
- 부문별로 보면 지난 9월 대비 교육서비스업(30.4%)와 운수업(1.5%)만이 상승하였고 사업서비스업(-34.2%), 도매 및 소매업(-20.4%), 숙박 및 음식점업(-20.0%) 등을 포함한 대부분이 감소하였으며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지난 9월(86.1%)보다 감소한 84.9%로 나타남
- 서울의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103개로 지난 9월 대비 9.6% 증가하고, 건설 및 설비업은 -25.2% 감소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5년	2006년				전월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025	3,824	3,904	4,197	3,451	-746	(-574)	-17.8	(-14.3)
서울	1,648	1,454	1,510	1,653	1,346	-307	(-302)	-18.6	(-18.3)
서비스업	1,334	1,175	1,253	1,424	1,143	-281	(-191)	-19.7	(-14.3)
제조업	153	140	132	94	103	9	(-50)	9.6	(-32.7)
건설 및 설비업	158	138	124	131	98	-33	(-60)	-25.2	(-38.0)

주: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상승, 부도업체 수 감소

■ 전국 어음부도율 0.04%로 지난 9월 대비 상승

- 2006년 10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4%로 지난 9월 보다 0.01%p 상승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81개로 지난 9월 보다 감소하여 1991년 1월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냄
- 업종별로 지난 9월 대비 제조업(-34개)과 건설업(-13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은 지난 9월과 비슷함

■ 서울 어음부도율 0.03%로 지난 9월 대비 상승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지난 9월 보다 0.01%p 상승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지난 9월 보다 4개 감소한 72개이고, 2006년 상반기 평균(76개)과 비슷한 수준임
- 2006년 10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개 감소하였으나, 지방은 43개 감소(152개 → 109개)하여 감소세는 지방에서 두드러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39.8%를 차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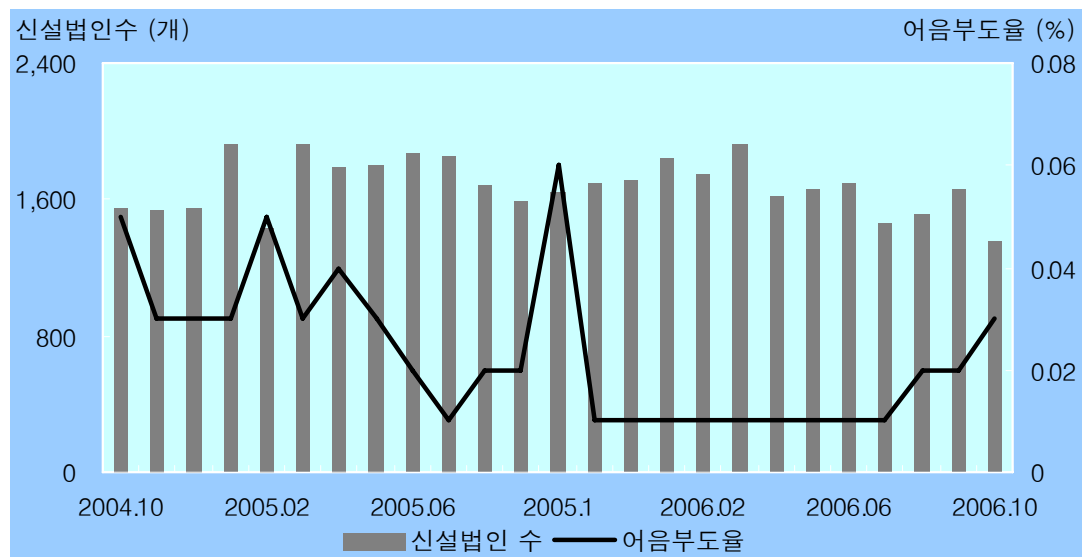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5년 10월	2006년				전월비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6	0.02	0.02	0.03	0.04	0.01	(-0.02)	33.3	(-33.3)
	부도업체 수	289	211	227	228	181	-47	(-108)	-20.6	(-37.4)
서울	어음부도율	0.06	0.01	0.02	0.02	0.03	0.01	(-0.03)	50.0	(-50.0)
	부도업체 수	104	71	85	76	72	-4	(-32)	-5.3	(-30.8)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안정적인 보증공급 추세 유지

■ 2개월 연속 평균보증금액 30백만원 초과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0월중 875건, 27,577백만원으로 지난 9월 대비 건수 25.3%, 금액 30.7% 감소함
- 지난 9월의 추석자금 조기지원으로 인한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추석 등으로 영업일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보증공급 추세를 유지함. 마을버스사업자에 대한 특별보증은 9건, 2,106백만원이 지원되어 평균 보증금액은 2개월 연속 30백만원을 초과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5.10	2006.06	2006.07	2006.08	2006.09	2006.10	전년동월비	
							증감	증감률
건수	2,225	993	662	1,038	1,171	875	-1,350 (-296)	-60.7 (-25.3)
금액	30,600	28,352	17,184	30,848	39,789	27,577	-3,023 (-1222)	-9.9 (-30.7)
건당평균금액	13.8	28.6	26.0	29.7	34.0	31.5	17.7 (-2.5)	128.3 (-7.4)

주: () 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기타업종(운수업)의 비중 증가

- 10월의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지난 9월과 비교하여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2.7%p 감소하였으며, 마을버스 특별보증으로 기타업종(운수업포함)의 비중은 지난 9월에 이어 증가하여 14.7%를 나타냄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97	349	156	225	48	875
비율	11.1	39.9	17.8	25.7	5.5	100
금액	4,667	10,196	3,488	5,166	4,060	27,577
비율	16.9	37.0	12.7	18.7	14.7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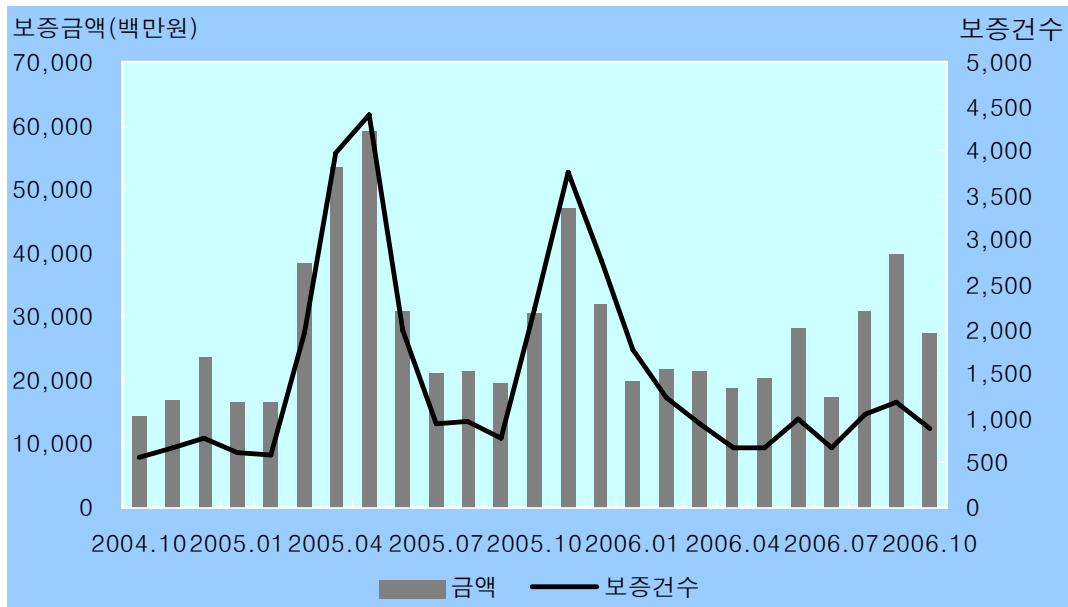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은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지난 9월 크게 감소하였으나 10월중 다소 회복하여 73.8%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기업의 비중이 다소 감소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6.08	2006.09	2006.10	전월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937	1,047	787	-260
	비율	90.3	89.4	89.9	0.5
	금액	24,220	26,958	20,358	-6,600
	비율	78.5	67.7	73.8	6.1
소기업	건수	65	91	67	-24
	비율	6.2	7.8	7.7	-0.1
	금액	4,762	8,897	5,884	-3,013
	비율	15.4	22.4	21.3	-1.1
중기업	건수	36	33	21	-12
	비율	3.5	2.8	2.4	-0.4
	금액	1,866	3,934	1,335	-2,599
	비율	6.1	9.9	4.9	-5.0
합계	건수	1,038	1,171	875	-296
	비율	100	100	100	0
	금액	30,848	39,789	27,577	-12,212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 지난해 9월 대비 수출 2.0% 감소, 수입 18.3% 증가

■ 전국 수출 지난해 10월 대비 10.8% 증가

- 2006년 10월중 전국의 수출은 지난해 10월 대비 10.8% 증가한 28,093백만 불로, 금년 들어 1월(3.6%)를 제외하고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증가 지속함
- 이는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 및 국제가격 강세, 특근 등을 통한 수출물량 확대 등에 따른 반도체·선박·자동차 등 주력제품의 수출호조와 주요 시장에서 높은 수출증가를 기록한 것에 기인함

■ 전국 수입 지난해 10월 대비 13.5% 증가

- 2006년 10월중 전국의 수입은 지난해 10월에 비하여 13.6% 증가한 25,853백만 불로, 무역수지는 올해 최대규모인 2,385백만 불 흑자를 기록함
- 이는 원유 등 에너지 수입 둔화와 소비재 수입증가율 하락 등으로 그 동안의 수입급증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된 데 기인함

■ 서울 수출 지난해 10월 대비 2.0% 감소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수출은 지난해 10월 대비 2.0% 감소한 1,930백만 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화학공업제품(37.5%), 철강금속제품(25.6%) 등이 증가하고 기타제품(-43.7%)과 섬유류(-22.0) 등이 감소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8.7%), 대만(29.3%), 인도네시아(20.6%) 등이 증가하고 일본(-32.3%), 미국(-7.4%) 등이 감소함

■ 서울 수입 지난해 10월 대비 18.3% 증가

- 2006년 10월중 서울의 수입은 지난해 10월 대비 18.3% 증가한 4,978백만 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54.3%), 기계류(29.2%) 기타제품(31.5%) 등을 비롯한 전 품목이 증가하였고, 국가별로는 중국(28.5%), 미국(25.3%), 싱가포르(37.3%) 등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5년		2006년				전년동월비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5,353	27,957	25,875	27,456	29,744	28,093	2,740	(-1,651)	10.8	(-5.6)
	수입	22,653	25,969	25,458	27,055	27,853	25,709	3,056	(-2,144)	13.5	(-7.7)
서울	수출	1,969	2,230	2,132	2,060	2,297	1,930	-39	(-367)	-2.0	(-16.0)
	수입	4,208	4,980	4,789	5,216	5,377	4,978	770	(-399)	18.3	(-7.4)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무역협회